

광부의 음주문화에 대한 재고 - 1970~1980년대 태백지역을 중심으로 -

김 달 현*

1. 머리말
2. 일상적 음주의 실제
3. 광부의 음주에 관한 근대적 시선
4. 음주의 성격과 의미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광부의 음주문화를 일상생활의 관점에서 탐구하는 것이다. 광부들은 음주와 돼지고기 섭취를 통해 노동에서 살아남았음을 확인하고 직업 병을 예방하는 행위로 합리화했다. 그들은 대폿집이라 불리는 선술집에서 교류와 소통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자신들만의 소유주를 만들었다. 때때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색식집을 찾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국가는 광부들의 음주를 퇴폐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주세 확보를 위해 느슨한 규제를 펼쳤다. 사회운동가들은 국가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고, 탄광촌을 병들게 하는 원인으로 음주 등 향락 문화를 지목하며 이를 사회악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광부들의 음주문화는 일상생활의 전환적 양식으로 볼 수 있다. 광부들의 음주는 노동을 지속하게 하는 동력이자 그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촘촘히 연결하는 장이었다. 노동을 마친 후 광부들이 함께 술자리를 가지는 것은 동료애의 집단성을 확인하는

* 국립안동대학교 문화유산학과 강사(urilab.dh@gmail.com)

행위였다. 특히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서의 음주는 탄광 공동체를 강화하고, 위험한 노동 상황에서 공동체적 감정을 공유하는 수단이었다. 결국, 광부들은 대팻집과 색شط집을 자신들의 공동체적 공간으로 전유하거나 재전유하면서, 탄광촌 사회를 움직이고 사회화 과정이 일어나는 소우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

* 주요어: 광부, 탄광촌, 음주문화, 태백, 대팻집

1. 머리말

탄광촌의 생활을 묘사한 탄광시에서 술은 늘 빠지지 않는 소재다. 탄광시로 대표되는 탄광문학은 탄광촌의 사회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리얼리즘 장르 가운데 하나로, 광부와 노동, 광부 가족의 삶 등 탄광촌의 세계를 사실적으로 반영한다.¹⁾ 시인 김이하의 작품을 살펴보자.

아따, 또 하루 살았구나 / 흰 이빨로 말을 씹으며 갱구를 나서는
광부들의 생애가 뜨겁게 / 삼국의 숯더미처럼 / 모락모락 김을 뿜는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 소주에 돼지 비젯덩어리를 안주 삼아
시커먼 막장의 공포를 / 막창자로 보낸다, 뒤가 부듯할 무렵
그들은 저마다의 뒤를 돌아다보며 /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달빛이 곱다 / 어린 날의 장난처럼 냇둑에 서서
삼질에 이끌이 난 힘줄보다 억센 / 오줌 즐기 하나씩 풀어놓으면
노리끼한 냇물과 조잘거리는 삶의 소리 / 아내의 말소리를 닮았다 (하락)²⁾

1) 정연수, 「탄광시의 현실인식과 미학적 특성 연구」, 강릉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7~18쪽.
2) 김이하, 「그 밤, 못다한 이야기 -탄광묘지2」, 『탄전문학』 2, 탄전문화연구소, 1993; 정연수, 『한국탄광시선집』 1, 푸른사상, 2007, 232~233쪽 재인용.

위의 시와 같이 광부는 막장에 출근하여 갱에서 노동에 시달리다 술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광부가 보내는 하루의 일상이다. 광부는 생존시간을 제외하고 노동과 여가의 시간을 보냈는데, 마땅히 여가라고 부를만한 것이 없던 탄광촌에서 음주는 광부의 몇 안 되는 여가 가운데 하나였다.

광부의 여가로서 음주는 거친 육체적 노동 후에 일상으로 이루어졌다. 예부터 농군들의 노동 현장에는 탁주가 빠지지 않았고, 모내기나 논매기 등의 큰일을 마치면 단오와 백중 무렵에 축제를 벌이며 음주가무를 즐겼다. 농사할 때 술에 취하니 풍물을 치며 더욱 열심히 노동에 임했다는 사실은³⁾ 농업 노동의 현장에 술이 빠지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세기 영국 노동자들은 육체적 노동으로 소진된 땀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맥주를 즐겼고⁴⁾ 그들은 작업을 마치고 모였던 선술집을 ‘노동자의 교회’라고 불렀다.⁵⁾ 한국의 노동 현장에서도 1990년대까지는 음주에 대해서 꽤 관대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예컨대 내가 대학 시절 공사 현장에서 아르바이트할 때도 점심을 먹으며 네 명이 소주 한두 병을 나눠마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작업을 총괄했던 반장은 “소주 한잔해야 힘이 난다.”라면서 나에게 음주를 권유하기도 했다. 이처럼 육체적 노동에 음주가 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다른 노동 직군에 비해서 광부의 음주는 유독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엄밀하게 노동과 여가의 관계에서, 막장에서의 노동시간은 일상이고 퇴근 후 벌어지는 술자리는 비일상으로 구분되었지만, 사실상 그들의 음주는 일상에 포함되

3) 『대곡일기』에 실린 ‘東雨家 일날인데 前夜 비가 많이 나린 관계로 물이 꺼서 못한다고 하여 日雨氏가 해달라 해서 작근두레와 합두레를 해서 日雨씨, 柱雨氏 等の 일을 했다. 술이 취하니 논 가운데서 춤을 추고 북장고 팽가리 등을 치며 논을 땀다. 사람이 많을 뿐더러 농악을 치니 더 일을 한다.’(『대곡일기』 1959년 7월 8일, 지역문화연구소 편, 『평택일기로 본 농촌생활사 1』, 경기문화재단, 2007, 79~80쪽.)는 기록은 농업노동과 술이 긴밀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4) E. P. Thompson, E.P.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나중일 외 옮김, 『영국 노동 계급의 형성』 상, 창작과비평사, 2000, 441쪽.

5) Eric Hobsbawm, *The Age of Capital: 1848-1875*, 정도영 옮김, 『자본의 시대』, 한길사, 1998, 430쪽.

었다. 그런데 일상문화(생활문화)는 사회적인 상황을 구성하는 인간·시간·공간이 상호결합된 체계를 통해서 표상되는데,⁶⁾ 그 성격에 따라, 제도와 집단, 개인 등의 문화로 구분된다. 그래서 일상문화는 하부체계로서 기능하며, 상호 보완적/배타적, 독립적/종속적 관계 속에서 특이성이 나타난다.⁷⁾ 따라서 광부의 음주는 개인적으로 노동의 피로감을 회복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광부 집단의 공동체성을 발휘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통로이거나 제도적으로 다음의 노동을 준비하는 실천적 양태로 볼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호황기의 탄광촌에서 이루어진 음주문화의 양상을 살펴보고, 일상문화로서 광부의 음주를 분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탄광촌은 “국가 정책이 공백화 되었듯이 문화 활동의 지원과 학술적 정보 또한 홀대받았던”⁸⁾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탄광촌은 이주민을 중심으로 광공업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던 까닭에, 민속학적 관심으로부터 제외된 곳이었다. 이곳의 민속학적 연구는 지역박물관이나 강원도의 일부 민속학자에 의해서 소소하게 진행되었다. 이들은 탄광촌의 ‘특별한 민속’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수준에서 민속지를 작성하였는데, 석탄합리화 정책으로 ‘곧’ 사라질 탄광촌의 문화를 기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들은 민속지 작성의 목적을 “탄광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탄광촌 고유의 생활풍속도 함께 소멸하고 있”어서,⁹⁾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에 사라진 한 탄광촌을 기억해 보”기¹⁰⁾ 위해 “탄광과 광산 노동자의 삶을 재조명하”는¹¹⁾ 것이라 밝혔다. 이 민속지들은 탄광촌을 민속 전승의 현장으로 보고 광부의 일상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¹²⁾ 특히 민속학자 외에 광부 출신의 연구자,

6) 장철수, 『한국 민속학의 체계적 접근』, 민속원, 2000, 33~34쪽.

7) 장철수, 앞의 책, 36~37쪽.

8) 이창식, 「탄광촌의 관광 자원화 방안」,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탄광촌 사람들의 삶과 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05, 793쪽.

9) 정연수, 『탄광촌 풍속 이야기』, 북코리아, 2010, 5쪽.

10) 홍창수, 『탄광의 기억과 풍경』, 푸른길, 2014, 5쪽.

11) 사북청년회의소 편, 『탄광촌의 삶과 애환』, 선인, 2001, 3쪽.

12)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강산, 『태백의 지명유래』, 태백문화원, 1989; 사북청년회의소 편, 『탄광촌의 삶과 애환』, 선인, 2001; 삼척시립박물관,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탄광촌 사람들의 삶과 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05; 정연수, 『탄광촌의

탄광지역의 청년단체와 문화기관 등이 나서서 탄광촌의 일상문화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민속지의 아쉬움은 남기 마련이다. 민속지에는 탄광촌을 대체로 ‘죽음과 사투하는 노동의 현실’과 ‘열악하고 암울한 지역’으로 묘사되었다.¹³⁾ 또 ‘탄광촌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에 처한 도시노동자, 희망이 없는 암울한 서발틴의 모습으로 표상되었고 노동의 이중착취 구조에 대한 문제, 낙후된 주거환경, 유해환경에 내몰린 청소년, 비생산적 여가로서 음주 등을 드러내며 탄광촌에 대한 부정성을 재생산했다. 그래서 ‘탄광촌 민속’에는 “대부분 ‘속’의 전승자이자 해석자로서 ‘민’은 드러나지 않고 ‘속’이 강조되었으며, ‘민’은 대개 ‘속’의 설명을 위해 출연한 보조해설자 또는 ‘조사라는 무대’ 위에 오른 출연자의 지위에 머물고 있다.”¹⁴⁾ 따라서 ‘탄광촌 민속’은 노동의 조건, 탄광촌의 환경과 일상생활 등에 주목했지만, 광부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민속을 드러내기 위한 기술에 집중되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광부의 음주는 노동과 대비되었다. 이한길은 탄광촌의 여가 문제에 대해서, 탄광촌에 흥청망청하는 불야성의 밤과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죽음을 비교하며 “삶과 죽음의 이중주”라고 표현했다.¹⁵⁾ 김도현은 노동에 반하는 음주에 대해서 탄광의 안전문제 때문에 노동과 음주가 철저히 구별된 노동환경을 설명했다.¹⁶⁾ 정연수는 탄광촌의 유흥시설과 소비적 여가

민요에 나타난 탄광촌 정체성 연구, 『강원민속학』 20,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006; 「태백시의 단오 세시풍속 연구」, 『강원민속학』 21,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007; 『탄광촌 풍속 이야기』, 북코리아, 2010; 『노보리와 동발: 탄광민속문화 보고서』, 북코리아, 2017; 『한국 탄광사: 광부의 절규』, 북코리아, 2022; 이한길, 「강원도 탄광촌 민속 연구」, 『민속학연구』 19, 국립민속박물관, 2006; 홍금수, 『탄광의 기억과 풍경』, 푸른길, 2014; 김도현, 「삼척 탄광지역의 주거 문화 연구」, 『아시아강원민속』 31,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019; 「태백지역의 탄광 관련 문화유산 고찰」, 『아시아강원민속』 32,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019.

13) 김세진, 「“씨들은 몸”: 사북 지역의 탄광개발과 환경문제」, 『비교문화연구』 10(1),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4, 173쪽; 정연수, 「탄광촌의 민요에 나타난 탄광촌 정체성 연구」, 『강원민속학』 20집,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006, 648~649쪽.

14) 한양명, 「국립민속박물관의 마을민속지 작업에 관한 검토」, 『민속연구』 32,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6, 214쪽.

15) 이한길, 앞의 글, 114쪽.

16) 김도현, 「태백지역의 탄광 관련 문화유산 고찰」, 『아시아강원민속』 32,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019, 45~46쪽.

에 관하여 “문화보급을 통한 주민의 각성을 의도적으로 막았을 국가권력”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¹⁷⁾ 운동환은 탄광촌에 투입된 상업자본이 노동자의 임금을 소비하도록 부추겼으며, 그로 인해 탄광촌의 사람들은 유흥과 소비적 행동양식을 가지며 재생불가능한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¹⁸⁾ 홍금수는 광부의 음주가 노동을 촉진하고 신체의 고통을 완화하는 자극제와 마취제였지만, 자본의 입장에서 생산량을 증대하고 사회적 요구에 불평없이 적응시키는 매개로 기능했고, 탄광 운영이 정교화되면서 “향락적이고 반사회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제재의 대상이 되었다고 설명했다.¹⁹⁾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탄광촌의 음주를 죽음의 노동과 대국적인, 비문화적이고 통제된 풍속으로 강조했다.

음주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연구자들은 음주의 문화적 행위보다 술 자체에 관심을 두거나²⁰⁾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음주의 문화적 현상을 강조했다,²¹⁾ 민속에 뒤따르는 수단으로 언급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김영미의 연구이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음주는 불건전한 취미, 저급한 오락으로 취급되며 조선의 문화적 수준의 하나로 평가되었고,²²⁾ 근대적 사회규범이 제시되면서 음주에 대한 풍속의 통제, 여가와 취향의 문화로 정착하게 된 음주와 술의 일상적 소비 양상에 대해서 밝혔다.²³⁾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광부들의 일상생활로서 음주문화를 살펴보겠다. 특히 나는 선행연구에서 탄광촌의 음주문화를 비생산적 여가문화로 평가하는 경향을 넘어서, 주체의 욕망과 감정이 교차하는 문화적 실천으로서 광부의 음주문화를 재고해 보려고 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공간

17) 정연수, 『한국탄광사: 광부의 절규』, 북코리아, 2022, 87~88쪽.

18) 운동환, 「탄광촌 주변문화」,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탄광촌 사람들의 삶과 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05, 299~302쪽.

19) 홍금수, 『탄광의 기억과 풍경』, 푸른길, 2014, 217~218쪽.

20) 노성환, 「술의 비교민속학적 연구」, 『비교민속학』 13, 비교민속학회, 1996.

21) 박재환 외, 『술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1999.

22) 김영미, 「일제 식민지기 ‘음주 취미’의 통제와 양면성 - 오락 부재(不在)와 음주의 문제화에 대한 일고찰 -」, 『역사민속학』 56, 한국역사민속학회, 2019.

23) 김영미, 「일제강점기 풍속통제와 음주문화의 재편 - 음주를 둘러싼 사회적 통념에 대한 고찰」, 『역사민속학』 59, 한국역사민속학회, 2020.

적 범위는 강원도 태백에서 광부들이 음주를 즐겼던 장성동과 황지동이고, 태백에서 광산업이 가장 호황을 누렸던 1970~1980년대를 민속지적 현재로 삼았다.

2. 일상적 음주의 실제

1) 음주의 합리화

탄광의 노동은 육체적, 환경적 어려움도 있었지만, 죽음과 마주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 맞서는 것이었다. 광부들이 갱내에서 먹는 도시락을 ‘저승밥’이라고 불렀던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²⁴⁾ 탄광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폭발, 매몰, (인차의) 전복, 화재, 수몰 등 지하 100m에서 일어날 모든 가능성을 동반했다. 그나마 사망의 위험을 무릅쓰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은 견딜만했다. 탄광의 노동환경은 지하 100m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열과 여기저기서 유입되는 지하수의 증발로 발생하는 습도, 갱도를 가득 메운 탄가루 등이 뒤덮었다. 광부들은 “탄 캐는 것보다 숨 쉬는 것이 더 힘들어” “숨 쉬는 것도 노동이었다.”고²⁵⁾ 말한다. 그래서 총동원 체제에서도, 1942년 1월 한 달 동안 탄광의 현장 이탈 비율은 10.2%에 달했고 출근율이 75%에 불과했다는 사실은²⁶⁾ 탄광노동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또한 탄광촌에는 서울에서 도망친 범죄자가 탄광에 취업하여 신분을 감추면, 그를 뒤쫓던 형사는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심한 벌을 받는 것이라 여기고 그 자리를 떠날 정도였다는 말이 전한다.²⁷⁾

탄광의 노동은 강도가 센 육체적 노동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탄광 노동은 “스트레스와 육체적 과로로 인한 피로, 통제와 긴장의 연속 등에서 안전사고와 질병이환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²⁸⁾ 조건을 갖추었다. 이러한 노동

24) 정연수, 『노보리와 동발: 탄광민속문화 보고서』, 북코리아, 2017, 88쪽.

25) K씨(남, 1942년생, 태백시 장성동, 2019.11.21.)의 제보; 정연수, 앞의 책, 89쪽.

26) 이상의, 「일제하 조선인 '증견노동자'와 노동규율」, 『일제하 경제정책과 일상생활』, 혜안, 2008, 171쪽.

27) H씨(남, 1944년생, 태백시 장성동, 2019.11.20.)의 제보.

은 스트레스를 증가하는 요인이 되는데,²⁹⁾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 기제는 폭음으로 나타난다.³⁰⁾ 광부 또한 노동으로부터 발생한 긴장을 완화하고 불안과 근심을 떨치려고³¹⁾ 일상적으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① 그때 광부들은 거의 80% 이상이 다 이 술꾼들이었는 것 같아. 왜 그 러냐 하면 사실 그 광부의 심정이라는 거는 언제 죽을지를 몰라. 그리고 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올 때, 갱구 바깥으로 나올 때 파란 하늘이 딱 보이면 오늘 살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목욕하고 씻구 나가면 전부 대포집이고 술집이니까. 그 퇴근길에 마시는 거지. 또 지나가다 보면 또 불러드리고 또 불려러 들어가 또 마시게 되고.³²⁾

② 광부가요. 광부가 퇴근할라치면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오늘도 살아남은 거죠. 실상 언제 죽을지를 몰랐어요. 사고가 생기면 제일 먼저 놀라는 게 가족인데 사고 났다 카고 안 들어오면 제일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술먹고 들어가는 건 오늘도 산 거죠. 막장이 달리 막장이 아닌 게 사는 게 막장인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광부가 그리 살았다고.³³⁾

③ 남편을 따라 이곳 광산촌에 온 지도 벌써 3년이 가까워온다. 하늘도 땅도 모두가 까만 그곳에서 그이는 갱내 감독으로 일하고 언제부터인지 나는 무사한 하루이기를 간절히 빌며 퇴근하는 그이를 보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는 광부아내가 된 것이다. 며칠 전 저녁 준비를 위해 수돗가에 갔는데 사고가 났다고 난리들이었다. 가슴이 막 뛰고 손이 떨려 쌀 씻던 손을 멈추고 나는 감독이 누구냐고 간신히 물었다. 그러나 청천 하늘에 날벼락같이 그이가 말고 있는 현장이라고 했다.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고 그의 얼굴과 그 무서운 현장이 눈에 아른거렸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모두 와

28) 이경용,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광부 건강에 대한 사회구조적 이해」, 『연세사회학』 10(11),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1990, 500쪽.

29) 노동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는 노동조직의 구조적 특성과 노동 활동, 조직 내 자신의 역할 등에서 일어난다(진기남·한동우, 『職場人的 飲酒行態와 삶의 質』, 집문당, 1998, 41~43쪽).

30) 진기남·한동우, 앞의 책, 105쪽.

31) 진기남·한동우, 앞의 책, 122쪽.

32) S씨(남, 1946년생, 태백시 장성동, 2019.11.22.)의 제보.

33) S씨(남, 1946년생, 태백시 장성동, 2019.11.22.)의 제보.

서 마음을 크게 먹으라고 위로해 주고 모두가 내 일이라는 절박감에 우리는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다. 다행히 무사했던 그이는 술이 잔뜩 취해 돌아와선 내 손을 꼭 쥐며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건 불가항력이었어, 정말 하늘의 뜻으로 생각할수 밖에 없어.” 그의 검은 얼굴 위에 머라고 나는 위로 한마디 할 수가 없었다(이하 생략).³⁴⁾

광부들의 음주는 오늘도 살아남았다는 하루에 대한 위안이었다. ①의 진술과 같이 광부는 오늘 하루를 살아남았으니, 그에 따른 보상으로 술집을 찾았다. 퇴근 후 마시는 대포 한잔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신에게 주는 선물과 같았다. ②처럼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광산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광부는 생존의 증거였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술 마시는 남편을 발견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때때로 ③과 같이 사고로 동료를 잃은 아픔과 슬픔은 술을 찾는 이유가 되었다. 광산 사고가 나자, 대낮부터 술에 취한 광부들이 대여섯 명씩 떼를 지어 취재기자들에게 한풀이했다는 사실은³⁵⁾ 이러한 상황을 말해준다. 따라서 광부가 퇴근 후 마셨던 대포 한잔은 고된 노동에서 비롯한 자기 위안의 표시이자,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방편이었다.

한편 막장의 환경은 탄가루와 먼지가 뒤엉켜 떠다니고 바닥에는 물이 넘쳐 질퍽했다. 공기 중의 탄가루는 폐로 들어가 폐 조직에 쌓여 손상을 입히고 폐포에 낀 극소분말은 폐를 굳게 만드는데, 이 병이 진폐였다. 진폐 환자의 70%가 광부라는 사실은³⁶⁾ 탄광의 노동환경이 위험을 무릅쓴 작업 현장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1980년대 이전까지 광부들은 진폐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1984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³⁷⁾ 진폐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건강진단과 위로금의 지급 등 광부복지를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태백에서는 1986년부터 태

34) 「鑛夫의 아내」, 『경향신문』 1979. 8. 16.

35) 「언제 닥칠지 모를 不幸…초조한 나날」, 『동아일보』, 1979. 4. 16.

36) 김세진, 「“찌들은 몸”: 사북 지역의 탄광개발과 환경문제」, 『비교문화연구』 10,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4, 178쪽.

37) 법률이 제정된 이후부터 국가에 의한 진폐 관리제도가 시행되었고 전국에 진폐 요양기관이 설치될 수 있었다(주용환, 『주용환, 진폐환자의 선봉에 서다』, 이색디자인, 2019, 118쪽).

백사회복지회가 기관지 「막장의 빛」에 진폐의 문제를 알리는 기사를 실으면 서³⁸⁾ 산업병 진폐와 관련된 지식이 확산되었다.

광부들이 진폐를 인식하기 이전, 탄가루를 씻어내는 방법은 음주였다. 막장에서 나와 들이켜는 술 한 잔은 ‘꿀맛’이었기 때문에 거창한 안주도 필요치 않았고 그저 김치 짠지 한 절음이면 족했다.³⁹⁾ 남편이 술을 마시지 않고 퇴근하면 아내는 막걸리 한 사발을 건네며 건강을 위해서 술을 권하기도 했는데, 퇴근 후 마시는 술 한잔을 보약이라고 여겼다고 한다.⁴⁰⁾

목욕하고 나오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대폿집으로 가는 거죠. 처음 먹는 그, 막걸리가 목구멍을 씻는 택이지. 하루종일 탄가루를 먹으면 목이 칼칼한데 한잔 마시면 괜찮거든. 그게 모르니까 그래 한거지. 갯에서 그냥 이래 해서, 모여서 이래 도시락을 먹는데, 그게 탄밥이지. 그래도 그냥 먹으니까 목에 탄이 걸리지 않겠어요.⁴¹⁾

광부는 퇴근 후에 마시는 막걸리 한 사발이 탄가루를 씻어 내려준다고 생각했다. 광부는 근무 시간 내내 갯에서 머물러야 했던 까닭에 갯내에 마련된 휴게소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일을 할 때는 마스크를 썼지만, 휴식하거나 식사할 때는 갯내에 가득 차 있는 미세한 탄가루들이 호흡기로 유입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광부는 퇴근 후에 칼칼한 목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술로 탄가루를 씻어낼 수 있다는 믿음은 오래전부터 광부들에게 구전으로 전승된 지식이었다. 1960년의 신문기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一般的으로 飲酒와 喫煙을 한다는 사람이 많았다. 女子의 境遇 飲酒한다는 사람이 五%, 喫煙한다는 사람이 八% 있었고 男子中 飲酒를 하지 않은

38) 원응호 편, 『태백사회복지회 30년사』, 한들출판사, 2014, 190쪽. 태백에서는 1991년에 광산지역별관리센터가 개관되면서 산업재해로서 진폐가 관리되기 시작했다(원응호 엮음, 앞의 책, 178쪽).

39) S씨(남, 1946년생, 태백시 장성동, 2019.11.22.)의 제보.

40) 정연수, 앞의 책, 39쪽.

41) K씨(남, 1942년생, 태백시 장성동, 2019.11.21.)의 제보.

사람이 二八% 喫煙을 하지 않는 사람이 十八%였다. 특이하게 坑內夫들에게는 豚肉과 酒類를 먹지 않으면 職業病인 硅肺에 感染될 蓋然性이 크다는 信念이 있는데 이것이 飲酒를 促進하고 있는 것 같았다.⁴²⁾

기사에 따르면, 당시 광부들은 돼지고기와 술을 먹지 않으면 규폐에 ‘감염’된다고 믿었는데, 이것을 광산촌에서 음주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한다. 광부는 진폐를 예방하려면 알코올 성분의 술과 기름진 돼지고기로 목을 씻어내야 한다고 여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광부들은 돼지고기 안주를 가장 으뜸으로 쳤는데, 매일 진폐를 예방하기 위해 돼지고기를 섭취하기에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 구운 돼지고기를 안주로 즐기게 된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였다.⁴³⁾

다른 안주는 뭐 별로 없어요. 시래기 장국, 고등어하고 막 별로. 이제, 뭐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고기 두루치기나 해달라고 하고. 그거 먹는 사람은 며칠 만에 이래 봐도 별로 없어요. 전부 시래기국하고 그걸로 술로. 대포 참 많이 팔았어요… (중략) … 그러다 월급날이 되면 이제, 뭐 식육점 같은 데서 고기 좀 구워 먹는데 이제 갠에 같은 이들이 모태서 한 번 먹는 거예요.⁴⁴⁾

광부들은 평소에 대폿집에서 시래기 장국이나 고등어조림을 주로 먹었고 가끔 특별메뉴로 볶은 돼지고기를 먹었다. 광부가 주문하면, 대폿집에서는 비계와 고기가 반반 섞인 수육이나 야채를 듬뿍 넣고 볶은 두루치기를 안주로 냈다. 또 광부들은 돼지고기를 저렴하게 먹기 위해서 식육점을 이용하기도 했다. 식육점은 그 자리에서 고기를 썰어주고 점포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서 고기를 구워 술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곳이었다.⁴⁵⁾ 그러나 광부에게 돼지고기 안주는 한 달에 두어 번 정도 먹을 수 있는 특별한 것이었다.

42) 「寧越炭鑛勞務者の 實態 - 勤勞條件을 中心으로」 (2), 『동아일보』 1960. 1. 14.

43) 김도현, 「탄광촌의 의·식·주」,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탄광촌 사람들의 삶과 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05. 377~379쪽.

44) J씨(남, 1948년생, 태백시 장성동, 2019.11.20.)의 제보.

45) S씨(남, 1946년생, 태백시 장성동, 2019.11.22.)의 제보.

이처럼 광부는 노동의 위안으로 삼거나 진폐를 예방하기 위해서 술을 마셨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광부에게 오늘을 살아남은 안도감과 광산 사고로 동료들을 잃었다는 비통함이 교차·반복되는 무력한 일상을 벗어나는 방편이자, 진폐를 극복하려는 자가 치유적 방법이었다. 즉, 광부들은 오늘을 버티고 내일의 노동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음주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광부들의 술자리는 늘 스트레스와 우울감, 진폐에 대한 불안 등이 교차·중첩된 일상이었을까? 혹은 광부의 일상은 자기 변민에 빠진 채, 음울하고 무력한 도시노동자로서 권태로운 술자리를 가졌을까? 이러한 물음을 가지고 광부들이 술을 마시기 위해 자주 찾았던 대폿집에서 벌어진 음주의 양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소통의 공간, 대폿집

광부들이 술을 마시기 위해서 주로 갔던 곳은 대폿집이라고 부르는 선술집이었다. 선술집은 전근대사회에서 음식을 팔던 주막이 분화되어 음식보다는 술을 위주로 판매하던 주점이었다.⁴⁶⁾ 광부들이 즐겨 찾았던 선술집은 탄광이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탄광촌 주변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들어섰다.⁴⁷⁾ 장성에서는 주로 장성광업소 정문 앞과 장성시장 주변으로 술집 거리가 형성되었다. 장성광업소 정문을 나와 장성교를 건너면 주유소가 있는데, 이 주유소에서 시작되는 도로(현 장성로)를 따라 대폿집과 식육점이 늘어섰다.

③ 여기 주유소 있는데 가기 전에 담배포도 있고 거기에 이제 뭐 국숫집도 있는데, 거기에 옛날에 대포집이 있었어요. 주유소에 대포집이 있을 때 이제 그 할머니가 술안주는 시래기국하고 뭐 이런 걸 한술 가마술에 끓여 놔. 끓여놓고 이제 그 항아리에 큰 데 술을 받아 가지고 부어놔요. 그냥 이

46) 주영하, 「'주막'의 근대적 지속과 분화: 한국음식점의 근대성에 대한 일고」, 『실천민속학 연구』 11, 실천민속학회, 2008, 24쪽.

47) 정선 사복에는 약 130여개의 술집이 들어섰고(황인욱·박다영·한정원, 앞의 책, 70쪽) 문경 가운에는 약 100여개의 술집이 있었다고(정상빈, 『문경 석탄박물관 전시로 본 광부들의 문화적 기억과 실천』, 민속원, 2023, 109쪽) 한다.

집에는 24시야. 갑방 갔다 이제 오면서 그 집 들려가지고 대포 먹는단 말입니다.···(중략)··· 다른 대포집이 많았는데 제일 푸하니까, 이제 정대포 집에 자주 갔어요. 그 할아버지가 정씨여서, 정대포.⁴⁸⁾

④ 한 잔 먹고 이제 가는 사람도 물론 있지. 더 많지. 그런데 거기에 술 먹다가 을방 올 때까지 먹어. 을방 온 사람은 되니까. 누가 이제 을방까지 올 때 뻘다고 그러면. 그때까지 먹는다고. 그거 뭐 먹으면서 또 병방 갔다 또 오는 사람까지 같이 먹어. 그래 가지고. 그 다음 날 출근을 하려니까 출근을 할 수 있나 그래 가지고 이제 출근도 못하고 계속 술 이틀 3일 먹는 사람도 있고.⁴⁹⁾

③에서처럼 주유소 옆에는 담뱃가게와 국숫집이 있었고 그 옆에 대폿집이 있었는데, 주인의 성씨를 따서 정대폿집이라고 불렸다. 대폿집에서는 가마솥에 시래깃국을 한 솥 끓이고 큰 항아리에 막걸리를 가득 부어놓으며 광부들을 기다렸다. 이곳에서는 장성양조장에서 막걸리를 받아 팔았는데, 술이 모자라면 주인 할머니가 물을 타기도 했지만, 광부들은 그것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 ④처럼 3교대로 운영된 광산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할 때가 되면 퇴근한 다음번 근무자들과 함께하기도 했다. 더러는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출근하지 못하는 이도 있었다. 이처럼 광부의 노동 특성은 탄광촌 대폿집이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⁵⁰⁾ 또한 광부들은 대폿집에서 거나하게 술에 취하면 젓가락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당시 탄광촌의 술집 분위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⑤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식육점에 손님들이 오셨다. 회식을 하는 손님이라서 사람이 많았다. 아저씨들은 ‘땡가랑땡가랑’ 상을 두들기며 박자와 음정과 가사가 하나도 맞지 않는 노래를 하였다. 너무 시끄러웠다. 어떤

48) J씨(남, 1948년생, 태백시 장성동, 2019.11.20.)의 제보.

49) H씨(남, 1944년생, 태백시 장성동, 2019.11.20.)의 제보.

50) 이러한 모습을 현재 탄광촌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석탄합리화 정책 이후, 광산들이 폐업하면서 광부의 수도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태백 인근 봉화군 석포면에는 탄광과 같이 3교대로 운영하는 영풍제련소가 있는데, 지금도 제련소에 근무하는 젊은 직원들이 아침부터 술 마시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때에는 아저씨들이 싸우기도 한다. 그때는 귀를 틀어막아야 한다. 숙제도 제대로 못한다. 1982. 6. 23. 水 오학년 서향옥.⁵¹⁾

⑥ 한참 먹다가 노다가(놀다가) 젓가락이나 두드렸는데, 놀다 보면 또 일어서는 놈이 있어. 춤춘다고. 키가 큰 사람은 춤추는 게 보기가 좋더라고. 괜찮아. 내처럼 짜레기 자른 놈이 서 가지고 뭐 하는 거는 그거보다 더 보기 싫은 게 없더라.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네가 한 게 딱 니 적성이다.” 그 래 그놈은 술만 마시면 춤추는 거야. 우리는 이제 춤을 추니까 나가라고 러더라고. 그래 나왔어. 쫓겨 나왔어.⁵²⁾

술을 마시다가 흥에 겨우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젓가락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광업소 주변 술집에서는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⑤ 처럼 박자와 음정, 가사는 중요하지 않았고, ⑥처럼 젓가락 박자에 맞추어 춤을 추기도 했다. 대폿집에서는 영업에 방해된다고 쫓아내기도 했는데, 술집에서 쫓겨나도 내일이면 다시 대폿집을 찾았다. 대폿집에서는 돈이 없어도 외상으로 술을 마실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집에는 항상 그냥 이제 이 치부책을 여기 끈기가(끈에) 걸어놔요. 그 래 내가 이제 술을 몇 되 갖다 먹었으면 (술을) 가지고 갈 때, 술을 5되, 술 2되 적어놓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월급날이 나와 값을 날이 되잖아요. 그 래, 그때는 이제 노란 봉투에 돈을 열어가 줬으니까. 그거 받아 가지고 오면서 갚아주고 나머지 이제 집에 갖다주고. 그럼 어떤 사람들은 3분의 2는 그 집에 다 갖다줘.⁵³⁾

위의 진술과 같이 광부들은 막걸리를 마실만큼 받아서 치부책에 적어두었다가 월급날이 되면 외상술을 갚았다. 대폿집 주인은 글을 몰랐지만, 자신만의 표식으로 광부들의 외상을 정확하게 기록했다. 광부들은 대부분 외상장부를 이용해 술을 마셨는데, 월급날 외상값을 모두 갚으면 월급의 1/3만 남기도 했다는 것이다. ‘누구네 집 남편이 술값으로 월급을 봉투째 날렸다.’는 사

51) 편집부, 「30년전, 정선에서 자란 아이들」, 『보보담』 2013년 여름호, 2013, 146쪽.

52) K씨(남, 1942년생, 태백시 장성동, 2019.11.20.)의 제보.

53) S씨(남, 1946년생, 태백시 장성동, 2019.11.21.)의 제보.

실은 월급날 사택촌에 올려 퍼진 부부싸움 소리로 짐작할 수 있었고, 이 소문은 다시 대폿집과 빨래터에서 퍼져 나갔다. 부양할 가족이 있든 없든, 어떤 이는 안주머니에 월급봉투를 통째로 넣고 술집으로 달려가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마시기도 했다. 다른 이는 외상 술값을 변제하려고 술집을 찾았다가, 주모가 서비스 술을 한잔 주면 그 자리에서 월급을 통째로 날리기 일췌였다.⁵⁴⁾ 광부는 인감증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얼마든지 술을 마실 수 있었던 까닭에 술값을 걱정하는 일은 드물었다. 그래서 장성에서는 남편이 월급을 술값으로 탕진하여 부부싸움이 일어나거나⁵⁵⁾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나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었다.

⑦ 저 금천에 안동 사람인데 오○○ 씨라고 있어요. 그 사람은 출근해도 일도 잘 안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제쳐 놓았으니까. 퇴근을 하면은 바로 집으로 안 가고 꼭 여기 앞으로 한 바퀴 돌아야 돼. 근데 이제 목마르니까 해장을 해야 되잖아요. 돈은 없지. 그 술집으로 정대포 밑으로 쭉 갔다 왔다 그래. 그러면 이제 유리창으로 일부러 소리를 질러. 일부러 이래 놓고는. 또 보나 안 보나 이래 보고 그러면 이름 부르면서 “들어나 이거 한잔 해라” 그러면 들어가. “내가 들어가면 되나?”하면서 들어가서 이제 몇 잔 먹어요. 몇 잔 먹고 일어나려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어나기는 일어나야 되겠고, 더 있으면 나도 한 잔 사야 되는데, 돈은 그럴 형편이 아니고. 그러면 밖에 누가 있으면 시비를 걸어요. 그 명분을 자꾸 하려고 그런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하마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니 오○○이, 니 이제 집에 가라.”하면 고마 “내가 그냥 갈라니 미안한데요.”하고 그냥 가고. 뭐 얻어먹고 막 하려니까 괜히 소리 지르고 미친 척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⁵⁶⁾

⑧ 오늘 안 마시려고 작정했던 말이야. 집에 일이 있다고. 그래서 퇴근하고 나가면 전부 대포집이니까. 내가 안가도, 지나가다 보면 부르고, 또 지나가다 보면 또 불러드리고, 또 붙들려 들어가 가지고 또 마시게 되고. 그래도 거의 물이 참 몰라 대한민국에서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 이 작은

54) J씨(남, 1948년생, 태백시 장성동, 2019.11.20.)의 제보.

55) J씨(남, 1948년생, 태백시 장성동, 2019.11.20.)의 제보.

56) L씨(남, 1941년생, 태백시 장성동, 2019.11.21.)의 제보.

동네에 술집으로 말하면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 아가씨들이 많았어 그때는. 술집마다 다 있었으니까. 그게 참 흥청망청했지. 그런 시절이었지.⁵⁷⁾

외상술을 먹지 못해도 ⑦처럼 술값이 없어서 대폿집이 즐비한 장성 거리를 어슬렁거리다 보면, 대폿집에 자리 잡고 있던 지인이 불러서 술을 권했다. 또 ⑧처럼 술을 마시지 않으려 해도 퇴근길에 부르거나 붙들려 들어가 술을 마시기도 했다. 먼저 술자리를 하던 광부들이 지나가는 이를 불러 세워 막걸리를 권하는 것은 매우 일상적이었다. 이렇게 술을 권하는 행동은 사회적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대폿집에서는 어용노조에 관한 이야기, 관리자들에 대한 험담과 욕설, 광업소의 정책에 대한 불만과 같은 정치적 논쟁부터 개인의 가정사, 장성에 떠도는 풍문이나 소문 같은 신변잡기의 이야기까지 그 주제를 가리지 않았다. 옆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동료는 자신과 하루에 여덟 시간 동안 갯에서 일하는 사이였지만 그곳에서는 분진과 소음, 높은 온도와 습도 등으로 대화를 할 수 없었다. 대폿집에서는 갯에서 적용되는 제도적 규칙과 규범에서 벗어나, “형님, 동생”의 호칭이 적용되는 ‘예외상태’의⁵⁸⁾ 시공간이 열렸다. 그러므로 대폿집은 광부들의 소통하는 시공간으로서, 광부 공동체를 강화하는 장이었다고 볼 수 있다. 대폿집에서는 “선술집 특유의 떠들썩한 분위기와 지배계급에 대한 일상적 저항의 정치가 실현”되었다.⁵⁹⁾ 광부들의 일상적 저항은 관리자들을 ‘꿀탕 먹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것은 공짜 술을 마시는 것이었다.

나중에 저 기획과에 근무할 때는 술값이 안 되니까 기획과장 내지는 각 상위과 실장들이나 실과장들. 소장, 부서장, 기획과장 이제 이 친구들이 공간에서 술 먹는 사람들, 관리자들이 술 먹을 때는 그 정보를 입수해. 저

57) H씨(남, 1944년생, 태백시 장성동, 2019.11.20.)의 제보.

58) Giorgio Agamben,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김항 옮김, 『예외상태』, 새물결, 2009, 80~82쪽.

59) 박철한, 「사북항쟁연구: 일상·공간·저항」,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38쪽.

서무계에 오늘 건수 없나 이래 가지고.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는, 오늘 어느 고깃집에서 뭐 먹는 게 돼 있다 그러면 그리로 가. 그리 가 가지고 제일 구석진 방에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아 가지고 먹어. 먹고 나올 때는 저 방으로 다 계산하라고. (웃음) 그냥, 그냥 먹고는 그냥 나가 주방으로. 계산하는 거는 내빼는 거지 뭐. 그래서 그 공짜로 또 먹고.⁶⁰⁾

광부들은 서무계를 통해 광업소의 고위관리직들이 모인다는 정보를 알아내어 그들이 회동할 장소에 미리 도착해서 자리를 잡았다. 관리자들은 주로 방이 딸린 고깃집을 갔는데, 광부들은 방에서 술을 마시면 바깥의 상황과 분리되는 점을 이용했다. 광부들은 가장 구석진 방에서 술과 고기로 배를 채우고 술값을 모두 관리자들에게 떠넘겼다. 이러한 일탈은 광산 규범의 권위를 거스르고 관리자의 위신을 훼손하는 탈규범적 행동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퇴근 후 광부들은 저렴한 가격이나 외상으로 술을 즐길 수 있어 자주 대폿집을 찾았다. 이곳은 광부의 일상적인 공간이자 광부사회를 연결하는 사회적 소통의 창구였다. 그렇다고 해서 광부들이 대폿집만 찾은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고급' 술을 즐기기 위해 그들의 욕망을 따르기도 했다.

3) 욕망의 공간, 색시집

광부들은 평소에 대폿집에서 막걸리를 마셨지만, 가끔 '고급' 술집을 드나들기도 했다. 광부들이 마시는 술에는 '급(緞)'이 있어서 월급을 받거나 때때로 '특별한 날'에는 막걸리보다 '좋은 술'을 마셨다. 광부들은 일상적으로 막걸리나 소주를 마셨고, 다음으로 정종을 좋은 술로 여겼다. 정종보다 급이 높은 술은 '거품'이라고 불렀던 맥주였는데, 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릴 때쯤부터 대폿집보다 맥주홀을 선호하게 되었다. '특별한 날'이라고 해봐야, 퇴깁한 뒤 목욕할 때 누군가가 선동하며 "거품 한번 먹으러 가자"고 하면 "그날은 고급으로 먹는 날"이었다.⁶¹⁾ 광부들은 장성에 있는 맥주홀 '귀빈'이나 장성시장

60) H씨(남, 1944년생, 태백시 장성동, 2019.11.20.)의 제보.

61) K씨(남, 1942년생, 태백시 장성동, 2019.11.20.)의 제보.

뒤 ‘텍사스 거리’에서 맥주를 마셨다. 광부에게 양주는 귀한 술이었는데, 색
 싯집을 가야 마실 수 있었다.

예전에 처음에는 막걸리 대포집에서 이제 막걸리를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발동이 걸려 가지고 이제 2차는 색시집으로 가고 3차 색시집으로 가
 고, 주로 그런 코스였고. 이제 조금 그 뒤쪽으로 가면 이제 나오면서 생맥
 주를 1,000cc를 두 개를 먹어. 이게 빈속이지. 퇴근길에 먹으면 이제 알뜰
 팔해지면. 그다음 또 어울려져 가지고 또 가고. 그런 생활이 거의 그랬어.

광부는 퇴근하자마자 저녁을 거른 채, 생맥주 1,000cc 두 잔을 마시고 취
 기가 오르면 색싯집을 갔다. 2차에 가는 색싯집은 접대부가 술을 따라 주고
 노래를 부르는 술집이었고, 3차는 접대부의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포함하는
 곳이었다. 당시 접대부가 있는 술집을 가리켜, 매릿집, 니나눗집, 작부집, 방
 석집이라고 불렀고, 술집 주인이 과부면 과붓집이라고 불렀다.⁶²⁾ 매릿집은
 여성 접대부가 매미처럼 술집 앞 기둥에 매달려서 지나가는 사람을 호객했
 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또는 접대부가 손님에게 애교를 부리는 소리
 가 매미와 같거나, 아름다움을 파는 여성이라는 뜻으로 매미(賣美)라고 부
 르게 되었다는 말도 전한다. 니나눗집은 여성 접대부가 젓가락 장단을 맞춰
 준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니나눗집에는 5~10명이 앉아서 술을 마실 수 있는
 큰 방 한두 개가 있었고 접대부 4~5명이 상주했다. 여기서는 주로 막걸리와
 정종, 맥주를 팔았는데, 안주로 삶거나 구운 돼지고기를 먹었다. 작부집은 접
 대부가 상주한 술집이었고 방석집은 방석에 편히 앉아서 술을 마시는 고급
 술집이었다. 방석집에서는 맥주에 백숙을 먹을 수 있었지만, 광부들이 방석
 집을 자주 출입하기에는 부담이 되었다.

⑨ 옛날에는 술을 파는 집에는 꼭 아가씨들이 있었어. 거의 가. 거의 한
 80% 이상 그렇지. 집들에 아가씨들이 많은 집이 이제 좀 규모가 좀 크고.
 이쪽에 장성 지역에서는 하나 건너 색시집이었으니까 거의. 그리고 철암

62) 정연수, 앞의 책, 159쪽.

이나 황지 쪽에도 이제 그런 집들이. 나중에는 황지 쪽이 조금 큰 집들이 많았지.⁶³⁾

⑩ 대포집에서 이제 술 마시다 보면. 또 2차에 가면, 2차가 이제 막 아가씨들이 있는 집으로 막 가고 이랬으니까. 지금 대창금방이 있는 그 골목들이 주로 아가씨들이 많은 그런 골목이었지. 퇴근하면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하여튼 뭐 이틀이 멀다 하고 갔는 것 같아. 내 기억으로는.⁶⁴⁾

⑨처럼 장성에 있던 100여 개의 술집 가운데 약 80%에 이르는 술집에 접대부들이 상주했다. 술집 두 개 중 하나가 색식집이었다는 언술은 당시 장성읍이 소비도시로 변성했음을 짐작케 한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탄광 산업이 한창일 때는 장성과 황지에 접대부가 2,000명에 이를 정도였는데, 탄광촌의 소비풍조가 지나쳐서 ‘지나가는 개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라는 말이⁶⁵⁾ 돌기도 했다. 그래서 ⑩처럼 광부들은 대포집에서 1차를 한 뒤, 색식집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당시 장성에 색식집들이 모여 있던 곳은 현재 장성중앙시장 뒤편의 장성시장1길 골목으로 대창금방에서 뻗은 ‘텍사스 골목’이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입구는 그리 넓지 않지만, 내부에는 길고 넓은 실내가 펼쳐지는데, 긴 복도 양옆에 미닫이문으로 이루어진 방들이 4~6개씩 늘어서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⁶⁶⁾ 색식집에서는 주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술을 취급하였기 때문에 광부들은 ‘고급’으로 마실 수 있었다. 보통 한 방에 10여 명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방을 하나 잡으면 접대부 한두 명이 와서 술 시중을 들었다고 한다.⁶⁷⁾ 광부들은 이틀이 멀지 않게 색식집을 자주 출입한 것으로 보아, 장성의 소비를

63) S씨(남, 1946년생, 태백시 장성동, 2019.11.22.)의 제보.

64) H씨(남, 1944년생, 태백시 장성동, 2019.11.21.)의 제보.

65) 정연수, 앞의 책, 113쪽. 이러한 언술은 지역이 경제적 호황을 이룰 때 들을 수 있는 것으로, 필자가 주민에게 직접 들은 바로는 강원도 양구에서 금강산댐을 건설할 때, 울산 장생포에서는 고래잡이가 한창일 때, 영광에서는 조기잡이가 한창일 때, 거제에서는 조선업이 성황이었을 때 지역경제를 설명하는 언설로 확인할 수 있었다.

66) 2019년에 양해를 구하고 들어갔던 가정집은 1990년대 초반까지 술집으로 운영되었는데, 현관에 들어서면 긴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옆으로 여섯 개의 방이 있었고 가장 안쪽에 주방이 배치되었다.

67) S씨(남, 1946년생, 태백시 장성동, 2019.11.21.)의 제보.

대표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장성이 소비도시로 급성장했던 까닭은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는 장성광업소의 광부들이 다른 이들보다 별이가 좋은 편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아저씨 사고로 죽고 나서 보상금 그거 받아서 여기 가게를 하나 인수했어. 텍사스 골목에, 우리집에 아가씨들 다섯을 데리고 있었는데, 나는 고급으로 장사했거든. 그래서 아가씨들이 우리집에 오려고 그랬지. 내가 데리고 있던 아가씨 중에 김○○씨 처가 있었는데, ●●라고. 그이는 나중에 손님하고 눈맞아서 여길 뺐고. ... (중략) ... 내가 하루에 패스포트만 열 병씩 팔았는데 그땐 그게 가장 고급이었고, 다른 것도 팔았지. 근데 그런 건 돈이 안되니까. 그래도 그걸로 애들 공부시키고 그런 거지. 아저씨가 여기 광업소에 다녔으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 일부러 팔아준다고. 그래서 장사한거지.⁶⁸⁾

2019년 장성시장 주변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여사장은 1970년대 중반에 광산 사고로 남편을 여의고 ‘텍사스 골목’에서 접대부가 있는 술집을 차렸다. 그는 주로 국산 양주인 패스포트를 팔았는데, 당시에는 고급술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광산 사고로 미망인이 된 이들 가운데는 ‘먹고 살려고’ 술집을 차리거나 술집의 종업원이 되기도 했다. 광부들은 일부러 동료의 가족이 운영하는 술집으로 2차를 가서 매상을 올려주었다.

한편 황지에는 대구관, 황춘옥관, 통일관, 은호정 등 접대부를 고용한 50여 개의 요정이⁶⁹⁾ 성업했다. 이 가운데 대구관은 동대문 밖에서 가장 규모가

68) K씨(여, 1952년생, 태백시 장성동, 2019.10.17.)의 제보.

69) 한국에서 요정은 근대화과정에서 일본의 요리옥을 본떠서 조선요리옥으로 출발했다가 각종 연회를 개최하면서 해체된 권변의 기생이 흘러들어오면서 대표적인 유흥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주영하, 『조선요리옥의 탄생: 안순환과 명월관』, 『동양학』 50,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1, 146~156쪽). 해방 후에는 요정에서 도색영화를 상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귀환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고급요정을 개방하라는 압력을 받기도 했다(이연식, 『해방 직후 서울 소재 ‘적산요정’ 개방운동의 원인과 전개과정』, 『향토서울』 84,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3, 217~222쪽). 황지의 요정은 동대문 밖에서 가장 규모가 컸는데, 대구관은 전국의 3대 요정이라 불릴 정도로 150평의 규모였다(홍춘봉, 『탄광촌 공화국』, 노동일보, 2002, 154~155쪽).

켰다고 알려졌는데, 대구관에서 일하는 접대부는 6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⁷⁰⁾ 요정의 접대부는 나나눗집과는 달리 기생이라고 불렀는데, 미모는 기본이고 노래와 춤을 모두 잘했기 때문이다. 서울과 대도시에서 번창했던 요정이 탄광촌까지 흘러들어온 이유는 경제적 호황과 연관되었다.

⑪ 또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경우도 있어. 이제, 이 시장에 가가지고, 떨치 나 이거 뭐야 간단한 안주거리 이걸 사 가지고 가. 그런 걸 사 가지고 와 가지고 술상 밑에다 갖다 내놓고 안주는 이 기본 안주 더 이상은 없다. 그거는 딱 넣고 그냥 술 먹고 뭐 안주 밑에다 꺼내놓고, 이게 하도 그리 돌아다니니까 알아요. 아가씨들이 그런 것도 이해를 해.⁷¹⁾

⑫ 어떤 경우에는 뭐 찌개거리 같은 것도 나오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전부 과일 같은 거, 오징어채, 이거 양념한 거. 그런 것도 많았고. 맥주 안주는 뻥하잖아. 그리고 그렇게 먹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대구에서 먹을 때도 있어. 먹을 때도 있는데. 안주를 이제 보니까 옆에 그까지 다 이제 버려가면서 술을 마시는 거. 이거는 뭐 술을 한 잔 먹었는데, 안주도 사라져 버리고. 또 다시 들어오고. '아, 요것 바라.' 술 마시면서 지켜보니까 아가씨가 안주를 어떻게 집냐 하면. 뭐 땅콩 같은 거 있잖아. 다 집어 이렇게. 다 집고 엄지 검지로 한두 개 잡는다고. 이 세 손가락으로는 하나만. 요거 잡고 요것만 털어놔. 털어놓고 요거는 상 밑으로 뿌려버리는 거야. 그래 가지고 확 상을 뿌계(부서) 버렸지. "이 새끼들이 어디서 이따구 수작하냐고." 그래 이게 다 도망가 버리고 나중에 이제 들리는 얘기는 내가 이제, 자기네들이 그렇게 수도 없이 했는데 걸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여기서 걸렸다 이거지. 그래 가지고 뭐 내가 형사 출신이니 아니네, 뭐네 하면서. 눈치가 빨랐던 거지.⁷²⁾

⑬ 술상에, 소주를 먹다 보니까 이제 목이 마르니까 물이 먹고 싶어 가지고. 술상 밑에 그릇이 하나 있더라고. 왜 물이 여기 있냐고는 꺼내 가지고 마시니까, 이게 물이 아니고 전부 술이야. (술을 받고 밑에 버린

70) 정연수는 대구관의 기생이 약 100여명 가량 있었다고 하였고(정연수, 앞의 책, 113쪽) 흥춘봉은 60여명이었다고 하는데(흥춘봉, 앞의 책, 155쪽), 구술자들은 정확한 수를 헤아릴 수 없지만 50명은 족히 넘었다고 한다.

71) H씨(남, 1944년생, 태백시 장성동, 2019.11.20.)의 제보.

72) J씨(남, 1948년생, 태백시 장성동, 2019.11.20.)의 제보.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 다들 얼마나 술 취했다. 그래서 술상도 다 엮고 술값도 주지 않았지. 그런 경우도 참 많았고. 하도 많이 먹고 돌아다녔으니까.⁷³⁾

색식집에서는 주로 맥주를 마셨기 때문에 주대가 비쌌다. ⑪처럼 광부들은 떨치와 같은 간단한 안주를 준비해서 술상 밑에 감추고 술을 마셨는데, 접대부도 이를 이해해 주었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찌개나 과일, 오징어 진미채, 양념한 진미채 등을 안주로 내놓았다. 또한 광부들은 ⑫와 같이 대구관을 가기도 했다. 이곳의 접대부들은 매상을 올리려고 몰래 술과 안주를 훔쳐거나 ⑬처럼 광부들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술상 밑에 큰 대접을 두고 술을 버리기도 했다. 광부는 이런 행동에 분노하며 질타했고, 때로는 술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기도 했다. 노동의 시간에서 늘 관리자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했던 광부들은 색식집에서만큼은 손님으로 대접받으며 접대부를 부릴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대구관의 술값은 5명 기준으로 술 한 상에 70~80만원이었고 10명이 넘으면 술값만 200~300만 원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⁷⁴⁾ 광부들이 자주 갈 수 없는 곳이었다. 어쩌다 한 번, 장성의 광부들이 ‘황지에서 술 마시는 것’을 특별하게 여겼던 이유다. 또 이들이 황지에서 술을 마시는 특별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태백에서 가장 질편하게 놀 수 있는 대밭촌이 있었기 때문이다.

황지에는 대밭촌이라고 부르는 술집 골목이 있었다. 여기는 주로 방석집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장성에서 ‘술이 오르면’ 술김에 차를 타고 대밭촌으로 나오기도 했다.

⑭ 거기 황지에 가면 대밭촌이라는 곳이 있어. 대밭, 그러니까 산죽, 산죽을 갖다가 이제 산죽을 잘라 가지고 지붕을. 그때는 그렇게 집 자체가 어떻게 됐나. 수작업으로.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그냥 산에서 필요한 것들 잘라 가지고는 지붕을 엮어 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게 막. 초막

73) H씨(남, 1944년생, 태백시 장성동, 2019.11.20.)의 제보.

74) 홍춘봉, 앞의 책, 156쪽.

이지. 아직 낙후된 촌막. 그런데 이제 아가씨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밭촌이라 그러는데. (웃음) 스케일이 좀 컸지. 씬쌌이가 크니까. 뭐 그런 데 가가지고 술 먹었나. 이제 할 얘기는 아닌데, 한 번 난 이제 그 홀에서 그냥 뭐 마시고 있다가 그 방에 자꾸 들어오라 그래 가지고. 문을 열었어, 열었더니 뭐가 벌개. 그때는 이제 그 사창가에 흥등. 흥등이, 그것도 술 마시는 데도 붉은 등으로 해놓은 그런 데다가. 다 벗겨놓고. 여자들은 다 벗겨놓고. 그러니 벌겍지. 그냥 난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상당히 좀 난해했다고 그러나. 그런 곳이었지.⁷⁵⁾

⑮ 황지는 버스 타고 다니기도 했고. 밤에 다니기도 했고. 좀 안좋은 얘기로, 좀 그렇지만. 그때 뭐 술 먹고 운전하는 건 다반사였으니까. 황지에 가서 술을 먹고는 차를 끌고 내려왔는데. 그것 때문에, 아침에 차를 어디다 댔는지도 모르고 차 찾느라고 난리를 쳤고. 또 황지에 가서 술 먹고 또 하다 보면 경찰서 형사 아들(애들) 또 만나 가지고 같이 먹고. 이제 내가 취해서 가려고 그러면 앞에 막고는 못 가게 하고. 그런 기억들이 나. 그래도 그냥 비키라고 소리 지르고. (차를) 끄는 것만, 또 끌고 내려오고.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 있었는데 고맙게 생각해야지.⁷⁶⁾

현재 태백시 번영로 아래에 있는 ‘머느리시장 가는 길’부터 황지시장 주차타워에 이르는 골목을 대밭촌이라고 불렀다. ⑭와 같이 대밭촌은 술집의 처마를 산죽으로 엮어 매었기 때문에 ‘대밭’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대밭촌에서는 접대부들을 탈의시켜 술을 마셨던 곳이었고 그렇게 ‘질편하게’ 놀 때는 방안의 불을 붉은색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⑮처럼 이미 술에 취했지만, 황지까지 운전해서 대밭촌을 찾았다는 사실은 광부의 본능적 욕망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광부들은 술을 마시기 위해서 장성과 황지를 넘나들며, 본능에 따라 에로스적 술자리를 즐겼다. 이러한 술자리는 광부의 욕망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함께 한 동료와 공감하고 공유하는 ‘사건’이기도 했고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75) H씨(남, 1944년생, 태백시 장성동, 2019.11.22.)의 제보.

76) K씨(남, 1942년생, 태백시 장성동, 2019.11.20.)의 제보.

3. 광부의 음주에 관한 근대적 시선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광부의 음주는 표면적으로 진폐를 예방하는 수단이었지만, 실제로 광부의 일상적 여가를 담당하며, 광부사회를 연결하는 사회적 소통의 창구였다. 1980년대까지 광산촌은 국가의 개발주의와 광업소가 요구하는 생산성 향상, 시민사회에서 규정한 취약지역이라는 세 갈래의 담론이 각축을 벌인 곳이었다. 국가의 입장에서 석탄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필수적 요소이자 산업화를 추진하는 원동력이었다. 1966년 연탄 파동에 따른 주유중탄(主油從炭) 정책, 1970년대에 두 차례 발생한 석유파동은 에너지 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⁷⁷⁾ 에너지 자원 수급의 불균형은 경제침체에서 정치변동으로 이어졌다.⁷⁸⁾ 1980년대 이전까지 국가는 광부들을 '산업전사'로 포장하며 석탄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각종 유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1972년 강원남부 지역의 홍수를 계기로 원주의 협동조합 운동가들이 탄광촌에서 리더들을 육성하고 자립경제 지원을 시작했다.⁷⁹⁾ 그리고 1980년 사북 항쟁 이후에는 탄광촌 지역사회에 저항의 전통이 만들어지면서⁸⁰⁾ "탄광 자본이 유포한 반공의 국시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전복할 수 있는 탄광 민중의 은유와 상상력의 정치를 가능하게"⁸¹⁾ 했다. 이런 배경 아래, 이 장에서는 광산촌의 담론을 지배하던 각각의 정치적 주체들이 광부들의 음주를 어떻게 규정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가가 광부들의 음주를 규제한 것은 식민지 시기부터 이루어졌다. 전통 사회에서 음주는 양가적 입장으로 인식되었으나, 근대 산업사회에 이르러서

77) 1960년대~1970년대의 연탄파동과 주유중탄 정책, 석유파동으로 인한 동원탄좌의 성장과 사북항쟁의 배경에 대해서는 김아람, 「1960~1970년대 석탄산업 정책과 동원탄좌」, 『역사문제연구』 42, 역사문제연구소, 2019, 24~42쪽 참조.

78) 장성호, 「사회·경제적 위기와 한국의 정치변동」, 『정치정보연구』 11(2), 한국정치정보학회, 2008, 204~206쪽.

79) 1970년대 원주그룹의 광산지역 협동조합운동에 대해서는 김소남, 『협동조합과 생명운동의 역사』, 소명출판, 2017, 457~516쪽 참조.

80) 박철한, 앞의 글, 78쪽.

81) 박철한, 앞의 글, 81쪽.

음주는 악취미의 하나로 평가되며 식민정부의 통제 대상이 되었다. 당시 음주는 문화 수준이 낮고 오락거리가 부재한 ‘무지한’ 조선인의 취미로써, 사회 범죄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교화와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⁸²⁾ ‘불건전하고 해악적인 유흥’은 당대의 사회적 윤리와 사회적 통념으로 인정되는 상식, 국가의 정치적 술수에 따라 규정되었다. 일제강점기에 국가는 노동을 통제하고 정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흥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조선총독부는 “유흥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노동과 근검의 권장, 유흥 중단을 계도”했고⁸³⁾ 음주·유흥의 부정성을 주지시켰다. “풍속통제는 특정한 취미와 문화, 기호, 행동 유형을 선량한 것(또는 건전한 것)과 선량하지 않은 것, 문제적인 것(주로 음란함과 불량함이라는 이름이 붙는다)으로 구별하고, 이 구별을 위한 척도를 법적 기준으로 정립”하였다.⁸⁴⁾ 국가가 조작한 유흥의 부정성은 전근대 사회의 “풍류와 결별하고 타락과 짝을 이루어”⁸⁵⁾ 사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악취미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음주와 유흥은 건전하지 못하고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병폐로 인식되면서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광업소와 지역의 경찰은 제도적 장치를 이용하여 광부들의 음주와 유흥을 규제했다. 1960년대부터 국가는 “민족 개조를 위한 근대적 노동윤리의 강조”를 심화하면서, 노동은 “근대적이고 선진적인 가치의 도입”을 위한 “계획성, 계산 가능성, 효율성 등으로 표상”되었다.⁸⁶⁾ 즉 국가는 노동을 근대화화 and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제이자 수단으로 삼았다. 당시 국가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법은 대규모 자본과 결탁하여 곤궁과 빈곤의 결핍상태를 증대함으로써, 하층계급을 동원하고 결핍을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노동의 당위성을 주지하여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었다.⁸⁷⁾ 그래서 노동의 현장에는 감시를 바탕

82) 김영미, 「일제 식민지기 ‘음주 취미’의 통제와 양면성 - 오락 부재(不在)와 음주의 문제화에 대한 일고찰 -, 『역사민속학』 56, 한국역사민속학회, 2019, 197~223쪽.

83) 이경돈, 「유흥, 악취미의 모더니티와 쾌락의 입계, 『민족문화사연구』 66, 민족문화사연구소, 2019, 159쪽.

84) 권명아, 『음란과 혁명』, 책세상, 2013, 33쪽.

85) 이경돈, 앞의 글, 158쪽.

86) 김원, 『여공 1970, 그녀들의 역역사』, 이매진, 2006, 167~168쪽.

87) Karl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홍기빈 옮김, 『거대한 전환』, 도서출판 길, 2009, 337~369쪽.

으로 노동자의 정보를 확보하고, 노동자의 정보로 노동을 통제하는 파놉티콘의 요소를 곳곳에 배치했다. 이렇게 계급을 동원하고 노동을 감시하는 국가의 노동 통제 방식은 그들의 정치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적 수단이었다.

그런데, 국가가 규제했던 것은 노동만이 아니었다. 탄광촌은 노동자들이 여가문화로 즐겼던 “술·도박·여자라는 3대 악풍을 사회적 낙인으로 감수해야 했던 배제의 공간”이⁸⁸⁾ 되었다. 노동력을 망실하고 노동생산성을 저하하는 음주는 “향락적이고 반사회적이며 따라서 제재의 대상”이었다.⁸⁹⁾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한 어느 광업소에서는 채탄권을 위탁받은 덕대의 광부에게 징계권을 행사하며, ‘작업장 내에서 음주와 도박 행위’를 징계의 근거로 삼고⁹⁰⁾ 작업 중 유희를 금지했다. 또한 광산촌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노동자들로 술과 도박, 싸움 등이 끊이지 않은 ‘난장판’이었지만 새마을운동을 통해 모범적인 마을로 변모시킨⁹¹⁾ 국가 정책의 홍보장이 되었다. 이처럼 광산촌은 특정한 생활 규범과 정신적 근대화, 집단적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등과 결합하며 국가가 추진한 정치전략에 동화되었다.⁹²⁾

한편 국가는 음주를 규제했지만, 때때로 묵인하고 방치하는 양가적 태도를 보였다. 탄광촌에서 통행금지를 미시행한 것은 광부의 출퇴근을 위한 조치였는데, 반대로 음주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래서 탄광촌에 대한 통행금지의 유예는 광부들의 음주 시간을 늘리는 데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세수의 확보와 관련되었다. 탄광촌의 음주량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고⁹³⁾ 탄광촌에서 벌어들이는 주세는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는 1960년대에 국가 재정을 충당할 목적으로 주세율을 조정했고 1970년대부터 주류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다.⁹⁴⁾

88) 홍금수, 앞의 책, 191쪽.

89) 홍금수, 앞의 책, 218쪽.

90) 홍금수, 앞의 책, 같은 쪽.

91) 「술·도박 汚名 광산촌 말끔히」, 『경향신문』, 1978. 4. 12.

92) 고원, 「새마을운동의 농민동원과 ‘국민만들기」, 『국가와 일상』, 공제욱 편, 한울아카데미, 2008, 46쪽.

93) 윤동환, 「탄광촌의 주변문화」,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탄광촌 사람들의 삶과 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05, 295쪽.

94) 정애숙, 「우리나라 주류 및 음주 정책의 변천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21, 한국보건사

1970년 주류세는 총 2백억 원으로 소주의 주세가 26억, 맥주가 104억 원이 었지만, 1975년 주류세는 총 8백억 원으로 급증했고 소주가 188억, 맥주가 430억 원으로 전체 국세의 6.5%를 차지했다.⁹⁵⁾ 또한 국가는 1977년부터 주 류세뿐만 아니라 유흥음식세를 부과하여 세금 징수를 3.4배 향상했는데,⁹⁶⁾ 유흥업소의 허가과 운영은 세금 충원의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 주류 판매는 국가의 재정을 충당하는 중요한 수단이었기에, 광부들의 유흥은 표면적으로 비난과 경멸의 대상이었지만, 유흥 관련 사업체의 수는 점차 증가했다. 이러 한 사례는 인도의 차 재배 농장에서도 확인된다.⁹⁷⁾ 인도의 플랜테이션 농장 에서는 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동 투입 조건을 완화하는 수단으 로 술을 배급하였으나, 국가는 주세를 증대하려고 묵인했고, 농장 관리자들 은 많은 불만을 표하며, 노동력 손실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탄광에서 광부들을 3교대로 근무시킨 이유는 탄을 채취하는 데 시간을 벌 거나 ‘노동의 공백’을 상쇄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갱도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배수펌프를 온종일 가동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⁹⁸⁾ 그래서 24시간 채탄 생산 시스템은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갱도를 유지하기 위한 목 적에서 시행되었다. 채탄시스템을 유지하려면 광부들의 역할이 필수적인데, 그들의 잦은 음주와 유흥은 광업소 운영에 문제를 일으켰다. 결국, 광업소 소 장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때 광업소에 사장님 흥영표씨라고. 이 양반이 그때 이제 정의사회구 현인가 뭐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 5공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이 사 람이 첫째 춤추는 사람, 놀음하는 사람 그걸 색출해 가지고. 타광업소로

회연구원, 2015, 60~61쪽.

95) 장근호, 『음주의 사회적 비용 감축을 위한 주세율 체계의 개편방안』, 재정지출분석센터, 2005, 6쪽.

96) 「地方公務員 哀歡과 榮辱의 虛實 (16) 税金징수」, 『동아일보』, 1977. 9. 28.

97) 인도 아삼지역 차 농장의 노동자였던 쿨리의 음주에 관한 정부와 농장 관리자의 갈등양 상에 대해서는 Nitin Varma, *Coolies of Capitalism: Assam Tea and the Making of Coolie Labour*, Berlin: Boston: De Gruyter Oldenbourg, 2016, pp. 128~145 참조.

98) 김용환·김재동, 「석탄산업의 생태와 역사: 태백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29(1), 한국문화인류학회, 1996, 202쪽.

전출 보내. 그래 가지고 그 갔는 사람도 있고 마누라가 춤을 춰도 쫓겨나고. 남편이 춤을 춰도 잡아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질서를 잡았다고. 질서 잡으면서 여자를 입항을 시켰어요. 남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라. 그래도 춤을 추는지. 동네 아줌마들 입항을 시키고. 그나마 집에 있던 아줌마들은 그걸 보고 신랑한테 매달려 울기도 하고. “내가 돈, 절대 돈 내 헛되이 안 쓰겠다.” 다짐도 한 사람이 있었고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아니 자유라는 게 뭐냐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하는 데, 그렇잖아. 그래 가지고 또 데모도 하고 이 소장 쫓아내라고 데모하고 막 이래서 그래 가지고 이제 질서를 많이 잡았죠. 참 말할 수 없어요. 아이고.⁹⁹⁾

홍영표 소장은 유흥을 일삼는 광부들을 징계하고, 춤바람이 난 광부의 부인에게 남편의 노동 현장을 견학시켰다. 그의 조치는 광부의 일상생활을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다. 결국 장성에서는 홍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와 데모가 이어졌는데, 당시 신문에는 “홍소장은 지난 82년 6월 부임 후 광업소 내규의 적용을 엄격히 해 한 달 평균 50~70명의 광원들을 징계하는 등 지나치게 고자세를 보였다”라고¹⁰⁰⁾ 보도되었다.

한편 1972년 원주그룹을 중심으로 결성된 재해대책사업위원회(이하 재해위)는 광산지역에서 소비조합 운동을 펼쳤고 탄광지역의 ‘광산지도자’를 양성·배출하기 시작했다.¹⁰¹⁾ 재해위 활동의 결과는 1977년 10여 개의 탄광에 신용협동조합 15개소와 소비조합 50개소를 설립했고 탄광노조의 지도자를 양성하여 탄광노조의 민주화를 이루었다. 그 후, 1984년 예정통합 지역교회의 연합으로 ‘기독교광산지역사회개발복지회’가 설립되었다. 이들은 광산촌을 “가장 중요한 산업지대이면서도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취약 지구”라고¹⁰²⁾ 규정하고 적극적인 사회선교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99) S씨(남, 1946년생, 태백시 장성동, 2019.11.22.)의 제보.

100) 『勤勞조건 등 불만 폭발』, 『조선일보』, 1985.03.07., 11면.

101) 1970년대 원주그룹의 광산지역 협동조합 운동에 대해서는 김소남, 『협동조합과 생명운동의 역사』, 소명출판, 2017, 457~516쪽 참조.

102) 원응호 편, 앞의 책, 40쪽.

사회운동가들은 탄광촌의 '전통'을 극복해야 할 사회적 모순이 얽혀있는 어둠의 땅이자 죽음의 도시로 규정하며, 국가의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통치 태도를 비판했다. 그들은 국가가 광부들을 음주와 도박 등 '퇴폐', '향락'의 문화에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지교회 담임목사로서 기독교 광산지역 사회개발복지회를 창립했던 이정규는 한 기고문에서 “퇴폐풍조와 음주 생활과 소비지향적인 사회 환경 때문에 청소년 범죄와 주부들의 탈선이 잦고 온갖 사회악이 유달리 심한 것이 광산 사회의 엄연한 현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에 “광산 지역의 사회 정화와 지역 정화를 철저히 하여 명랑 사회가 되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어야 할 것을 요구했다.”¹⁰³⁾ 이들은 ‘기독교광산지역사회개발복지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개발의 관점에서 탄광촌의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 활동을 펼쳤으며, 여기에는 무료 건강검진을 비롯하여 재가진폐환자의 알콜중독 재활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¹⁰⁴⁾

이처럼 국가와 사회운동가는 근대의 체계에서 광산촌의 유흥을 각각 통치와 윤리의 잣대로 불건전하고 해악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근대국가는 규율과 자본을 바탕으로 권력 집단의 생산 체계와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며 이중적 태도를 보였고, 사회운동가는 기독교적 윤리와 민중주의를 내세우며 음주와 유흥을 탄광촌의 악습과 악행으로 보았다.

4. 음주의 성격과 의미

광부에게 술은 막장의 노동을 마치고 여가의 시간으로 회귀하는 징표이자, 일상과 반일상(半日常)을 넘나드는 ‘시간과 소통’의 매체였다. 막장의 고된 노동 후에 즐기는 음주는 노동에서 벗어나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음주 중심의 광부 여가 경험은 근대적 노동체계에 포섭되어 쾌락적인 것으로 간주되었고, 소비상업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¹⁰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부의

10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오픈아카이브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36365>, 검색일: 2023.02.01.).

104) 원응호 편, 앞의 책, 180~184쪽.

105) Chris Rojek. *Decentring leisure : rethinking leisure theory*. 최석호 옮김, 『포스트모더니

음주는 그들에게 이야기판을 만들고 노래와 춤을 즐기는 여흥을 제공했으며, 광부의 사회적 관계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광부들의 음주문화는 중층적으로 구성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진폐를 예방하는 것으로 설명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광부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장치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노동체계에 포섭되었다는 점에서 일상적 음주는 노동을 이어가는 동력이기도 했다. 광부들은 음주로 에너지를 공급받았고 술과 곁들이는 음식은 노동에 시달린 허기를 달랠 수 있었다. 특히 고기는 에너지의 공급원이자 단백질 섭취의 중요한 요소로 고기를 구성하는 근육을 섭취하면 근육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로 남성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식품이었다.¹⁰⁶⁾ 광부에게 돼지고기 안주는 힘든 노동으로 소비된 체력을 보충하고 탄가루를 씻어 건강을 유지하는 수단이었다. 그래서 광부가 노동을 끝내고 먹는 술과 고기는 노동에 대한 자기위로적 포상인 동시에 다음의 노동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에너지원이었다. 광부의 음주 이유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 개인적 측면 | - | 사회적 측면 | - | 제도적 측면 |
| 자기 삶의 위로 | | 광부 사회의 소통 | | 노동 지속의 동력 |
| 진폐의 예방 | | 광부 공동체의 구성 | | |

위의 도식과 같이 광부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을 위로하고 진폐를 예방하는 수단으로 음주했다. 그러나 이들의 음주는 광부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촘촘히 연결하였고, 역센 노동에서 벗어나 그들의 공동체적 인식을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다음의 노동을 준비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증과 여가』, 일신사, 2002, 219~223쪽.

106) Nan Mellinger, *Fleisch*, 임진숙 옮김, 『고기: 육망의 근원과 변화』, 해바라기, 2002, 153~155쪽.

한편 광부들은 음주공간을 자신들만의 자유로운 세계로 만들 수 있었다. 대포집이 자유로웠던 이유는 당장 돈이 없어도 외상 술을 실컷 먹을 수 있었고 언제나 동료들이 함께했기 때문이다. 광부들이 마음 편히 술을 즐길 수 있는 대포집은 광부들의 복지시설에 가까웠다. 그래서 광부들의 사회적 지위는 술집에서만큼은 달라 보였다. 광부들이 찾던 색시집은 남성 중심의 탄광촌 사회에서 본능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도피적 여가의 경험이었다. 광부들은 여가의 질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채, 독특하고 특별하며 구조화된 행위가 배제된 잔여적 일상생활에서¹⁰⁷⁾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여가 활동이 접대부가 있는 술집을 드나드는 것이었다. 광부들은 외진 방 한 쪽에서 접대부에게 이것저것을 지시하며, 마치 관리자인 양 군림하며 사회적 지위의 격상을 경험할 수 있었다.

자유로운 대포집의 일상은 광부들이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 그들의 공동체적 인식을 확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시간이었다. 이것은 광부들이 공개적인 공간에서 활동하며, 근대적 규율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을 누릴 기회를 제공했다. 막장에서 급하게 먹었던 보잘것없는 도시락이 노동의 일상을 상징한다면, 대포집에서 먹는 뜨끈한 시래깃국과 지방이 가득한 돼지고기 한 점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자 이를 위한 “공개된 공간, 자유로운 시간, 사치”였던¹⁰⁸⁾ 것이다.

특히 탄광 노동은 동료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위험을 수반했기 때문에, 동료애와 협동심이 필수적이었다. 광부들은 “공동체 및 노동 경험의 동질성과 고립, 긴밀한 상호 의존, 그리고 끝으로 그들 직업 내부의 상대적인 차별화(또한 외부로 향한 이동성의) 부재 등”의 직업적 특징을¹⁰⁹⁾ 통해 사회적 응집력을 높이고 집단 문화를 극대화했다. 즉 광부들은 노동 현장과 술자리에서 동료애를 형성함으로써 노동에서 비롯하는 긴장의 이완과 수축을 받

107) Chris Rojek, 앞의 책, 202쪽.

108) Gerhard Marcel Martin, *Fest und Alltag. Bausteine zu einer Theorie des Festes*, 김문한 옮김, 『축제와 일상』, 한국신학연구소, 1985, 61쪽.

109) James C. Scott, *Domination and the Arts of Resistance: Hidden Transcripts*, 전상인 옮김, 『지배, 그리고 저항의 예술 -은닉대본』, 후마니타스, 2020, 231쪽.

복할 수 있었다. 특히 광산에서 발생한 재난은 공동체를 정의하고 집단적 연대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재난을 함께 경험한 광산 공동체는 산업적 재난으로부터 희생된 역사를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할 권리를 도덕적 경제 논리에 포함시켰다.¹¹⁰⁾ 퇴근 후 마시는 막걸리 한 사발은 다음 노동을 준비하는 공감과 같았다. 노동을 마치고 함께 술자리는 가지는 것은 동료애를 확인하고 노동의 상황을 공유하는 행위였다. 이런 동질성은 동료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확장되었으며, 광부의 가족이 운영하는 술집을 일부러 찾아갔던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인간 | 시간 | 공간 |
|--------------|-------------|----------------|
| 대폿집: 에너지의 보충 | - 소통과 공감의 장 | - 탄광촌 공동체 형성 |
| 색싯집: 본능적 욕구 | - 현실로부터 도피 | - 사회적 지위 향상 경험 |

이렇듯, 광부들의 음주는 단순히 성적 욕구를 채우고 에너지를 보충하는 소비 향락적 유흥에 그치지 않았다. 이곳은 막장에서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이며,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일상의 시간이기도 했다. 대폿집은 광부, 가족, 상인 등으로 이루어진 탄광촌 공동체를 형성하는 공간이었고, 색싯집은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였다. 따라서 광부들의 음주는 경제체계와 생활체계에서 발현되는 의사소통 행위로 볼 수 있다.

5. 맺음말

한국에서 탄광은 식민지와 개발의 시대를 겪으며 근대화의 산물로 자리잡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탄광촌과 광부에 대한 문화는 주로 이 두 시대를 바라

110) Ewan Gibbs, *Coal Country: The Meaning and Memory of Deindustrialization in Postwar Scotland*, London: University of London Press, 2021, p. 107.

보는 관점에서 묘사되었다. 광부의 음주문화 역시 근대주의적 관점에서 노동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평가되었다.

2017년, 처음 탄광촌을 마주했던 느낌은 향량한 들판에 가시덤불이 굴러다니는 서부영화의 한 장면과 같았다. 폐광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당시의 탄광촌은 음울과 고독이 지배하는 곳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광촌은 늘 탄광촌이라고 설명되고 있었다. 탄광촌 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을 ‘검은’, ‘죽은’, ‘떠나간’, ‘남은’, ‘비통한’ 등의 수식어로 표현했다. 태백, 영월, 정선, 보령 등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탄광촌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청년들은 ‘검은 땅에 희망의 새싹을 심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개발, 도시재생, 관광을 이야기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폐쇄법 이후 탄광촌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신들의 터전을 어둡고 암울하게 포장해야만 했다.

그러나 탄광이 호황이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처음 가졌던 탄광촌의 느낌은 완전히 달라졌다. 탄광촌의 술집 골목은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고, 술에 취한 광부들은 노래를 부르며 골목을 누볐으며, 사택단지에서는 부부싸움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마디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었다. 탄광 노동이 늘 죽음과 마주하는 처절한 삶의 전쟁터였지만, 일상은 그렇지 않았다. 내가 알게 된 탄광촌의 일상은 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밝은 내일을 기약하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넘치고, 왈카스지결한 동네였다. 장성에 있는 금은방은 좋은 보석을 위해 뇌물을 주려는 사람들로 붐볐고, 나나눗집의 젓가락 소리는 끊임없이 거리로 흘러나왔다. 광부들은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투쟁했던 만큼, 탄광촌의 일상은 활기차고 풍부했으며, 늘 거리에는 사람으로 붐볐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기획되었다. 나는 광부들의 음주문화를 편견 없이 소묘해 보려고 노력했다. 2024년 6월에 태백 장성광업소가 폐업할 예정이다. 그 이듬해에는 삼척 도계광업소가 폐업의 절차를 밟게 된다. 광부들의 질곡 된 삶이 켜켜이 쌓여 있는 탄광촌에 대한 문화 연구가 필요한 이유다. 물론 이런 작업은 구제민속학이라는¹¹¹⁾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111) 남근우, 「민속 개념 재고」, 『실천민속학연구』 21, 실천민속학회, 2013, 93~96쪽.

지금까지 탄광촌의 문화가 가치편향적으로 읽혔다면, 이것을 바로 잡는 것도 연구자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광부의 일상에 주목하여 음주문화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여기서는 광업소의 가장 큰 행사였던 체육대회와 태백 절골의 함태탄광 함태단오제, 그리고 일상과 비밀상이 교차했던 광업소의 회식과 ‘공휴가 나면’ 사택 중심으로 다녔던 야유회, 한 달간 계곡에서 출퇴근했던 천렵 등 비밀상적 시공간에서 일어났던 광부들의 여가문화를 다루지 못했다. 이러한 아쉬움은 다음 연구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겠다.

참고문헌

1. 사료

-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대곡일기』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감정노동 종사자』, 안전보건공단, 2015.
『대한석탄공사 50년사』, 대한석탄공사, 2001.
『정선군 석탄산업사』, 정선군, 2005.
편집부, 「30년전, 정선에서 자란 아이들」, 『보보담』 2013년 여름호, 2013.

2. 논저

- 강준만, 『룸살롱 공화국』, 인물과사상사, 2011.
고 원, 「새마을운동의 농민동원과 ‘국민만들기’」, 공제욱 (편), 『국가와 일상』, 한울아카데미, 2008.
권명아, 『음란과 혁명』, 책세상, 2013.
권오현, 「민주화 이후 세종대왕의 국가영웅화와 기념문화의 변천」, 『사회사상과 문화』 18(3), 동양사회사상학회, 2015.
권진호, 「태백시의 형성과정과 공간구조 변화」,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김 원, 『여공 1970, 그녀들의 반역사』, 이매진, 2006 개정판.
김강산, 『태백의 지명유래』, 태백문화원, 1989.
김도현, 「삼척 탄광지역의 주거 문화 연구」, 『아시아강원민속』 31,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019.
_____, 「태백지역의 탄광 관련 문화유산 고찰」, 『아시아강원민속』 32,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019.
김만재, 「탄광도시의 성장과 쇠퇴」, 『한국지역개발학회지』 8(2), 한국지역개발학회, 1996.
김문겸, 『여가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1993.
김세건, 「“찌든은 몸”: 사북 지역의 탄광개발과 환경문제」, 『비교문화연구』 10(1),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4.

- 김소남, 『협동조합과 생명운동의 역사』, 소명출판, 2017.
- 김아람, 「1960~1970년대 석탄산업 정책과 동원탄좌」, 『역사문제연구』 42, 역사문제연구소, 2019.
- 김영미, 「일제 식민지기 ‘음주 취미’의 통제와 양면성 - 오락 부재(不在)와 음주의 문제화에 대한 일고찰 -」, 『역사민속학』 56, 한국역사민속학회, 2019.
- _____, 「일제강점기 풍속통제와 음주문화의 재편 음주를 둘러싼 사회적 통념에 대한 고찰」, 『역사민속학』 59, 한국역사민속학회, 2020.
- 김용환·김재동, 「석탄산업의 생태와 역사: 태백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29(1), 한국문화인류학회, 1996.
- 김 원, 『여공 1970, 그녀들의 反역사』, 이매진, 2006.
- 남근우, 「민속 개념 재고」, 『실천민속학연구』 21, 실천민속학회, 2013.
- 노성환, 「술의 비교민속학적 연구」, 『비교민속학』 13, 비교민속학회, 1996.
- 노영중, 「일제강점기 노무자원 조사와 충남지역 강제연행」, 『한국근현대사 연구』 78, 한국근현대사학회, 2016.
- 박선권, 『현대적 여가의 상태』, 르네상스, 2006.
- 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 편, 『술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1999.
- 박철한, 「사북항쟁연구: 일상·공간·저항」,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사북청년회의소 편, 『탄광촌의 삶과 애환』, 선인, 2001.
- 삼척시립박물관 편,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탄광촌 사람들의 삶과 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05.
- 송은영, 「1960년대 여가 또는 레저 문화의 정치」, 『한국학논집』 51,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3.
- 여가문화연구회 편, 『한국인의 놀이의식과 여가문화』, 집문당, 1997.
- 역사문제연구소 민중사반사북팀, 『1980년 사북항쟁과 일상의 사회사』, 선인, 2021.
- 원영미, 「노동자투쟁 이전 울산지역 노동자 활동」, 『역사와 경계』 118, 부산경남사학회, 2021.
- 원응호 편, 『태백사회복지회 30년사』, 한들출판사, 2014.
- 이경돈, 「유흥, 악취미의 모더니티와 쾌락의 임계」, 『민족문화사연구』 66, 민족

- 문학사연구소, 2019.
- 이경용,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광부 건강에 대한 사회구조적 이해」, 『연세사 회학』 10·11합본,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1990.
- 이배용, 『한국근대 광업침탈사 연구』, 일조각, 1989.
- 이상의, 「일제하 조선인 ‘중견노동자’와 노동규율」, 『일제하 경제정책과 일상 생활』, 해안, 2008.
- 이연식, 「해방 직후 서울 소재 ‘적산요정’ 개방운동의 원인과 전개과정」, 『향토 서울』 84,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3.
- 이한길, 「강원도 탄광촌 민속 연구」, 『민속학연구』, 국립민속박물관, 2006.
- 장근호, 『음주의 사회적 비용 감축을 위한 주세율 체계의 개편방안』, 재정지출 분석센터, 2005.
- 장성호, 「사회·경제적 위기와 한국의 정치변동」, 『정치정보연구』 11(2), 한국 정치정보학회, 2008.
- 장철수, 『한국 민속학의 체계적 접근』, 민속원, 2000.
- 정상빈, 『문경 석탄박물관 전시로 본 광부들의 문화적 기억과 실천』, 민속원, 2023.
- 정수남, 「1970년대 부랑인정책과 사회악의 쓸모」, 『1970년대 사회변동과 자기 재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8.
- 정애숙, 「우리나라 주류 및 음주 정책의 변천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 정연수, 「탄광촌의 민요에 나타난 탄광촌 정체성 연구」, 『강원민속학』 20,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006.
- _____, 『한국탄광시선집 1』, 푸른사상, 2007.
- _____, 「태백시의 단오 세시풍속 연구」, 『강원민속학』 21,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007.
- _____, 「탄광시의 현실인식과 미학적 특성 연구」, 강릉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강릉대학교, 2008.
- _____, 『탄광촌 풍속 이야기』, 북코리아, 2010.
- _____, 『노보리와 동발: 탄광민속문화 보고서』, 북코리아, 2017.
- _____, 『한국 탄광사: 광부의 절규』, 북코리아, 2022.

- 정향진, 「감정의 인류학」, 『한국문화인류학』 46(3), 한국문화인류학회, 2013.
- 정호기, 「일상공간 속의 영웅과 애국주의」, 『국가와 일상』, 한울아카데미, 2008.
- 주영하, 「'주막'의 근대적 지속과 분화: 한국음식집의 근대성에 대한 일고」, 『실천민속학연구』 11, 실천민속학회, 2008.
- _____, 「조선요리옥의 탄생: 안순환과 명월관」, 『동양학』 50,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1.
- 주응환, 『주응환, 진폐환자의 선봉에 서다』, 이색디자인, 2019.
- 진기남·한동우, 『職場人の 飲酒行態와 삶의 質』, 집문당, 1998.
- 한양명, 「놀이민속의 탈맥락화와 재맥락화」, 『한국민속학』, 한국민속학회, 2009.
- _____, 「국립민속박물관의 마을민속지 작업에 관한 검토」, 『민속연구』 32,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6.
- 홍금수, 『탄광의 기억과 풍경』, 푸른길, 2014.
- 홍춘봉, 『탄광촌 공화국』, 노동일보, 2002.
- 황인옥·박다영·한정원, 『사북항쟁과 국가폭력』, 지식공작소, 2021.
- Antonio Gramsci, *Prison Notebooks*, 이상훈 옮김, 『그람시의 옥주수고』 1, 거름, 2004.
- Benjamin Kline Hunnicutt, *Kellogg's Six Hour Day*, 김승진 옮김, 『8시간 VS 6시간 켈로그의 6시간 노동제 1930~1985』, 이후, 2011.
- Chris Rojek, *Decentring leisure : rethinking leisure theory*. 최석호 옮김, 『포스트모더니즘과 여가』, 일신사, 2002.
- E. P. Thompson, E.P.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나종일 외 옮김,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 상, 창작과비평사, 2000
- Eric Hobsbawm, *The Age of Capital: 1848-1875*, 정도영 옮김, 『자본의 시대』, 한길사, 1998
- Ewan Gibbs, *Coal Country: The Meaning and Memory of Deindustrialization in Postwar Scotland*, London: University of London Press, 2021.
- Gerhard Marcel Martin, *Fest und Alltag. Bausteine zu einer Theorie des Festes*, 김문한 옮김, 『축제와 일상』, 한국신학연구소, 1985.
- Giorgio Agamben,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김항 옮김,

『예외상태』, 새물결, 2009.

Jack Barbalet Ed, *Emotions and Sociology*, 박형신 옮김, 『감정과 사회학』, 이학사, 2009.

James C. Scott. *Domination and the Arts of Resistance: Hidden Transcripts*. 전상인 옮김, 『지배, 그리고 저항의 예술 -은닉대본』, 후마니타스, 2020.

Jean Baudrillard, *The Consumer Society*, 이상률 옮김,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1991.

June Nash, *We Eat the Mines and the Mines Eat Us: Dependency and Exploitation in Bolivian Tin Mines*, NewYork: Columbia University: Revised edition, 1993.

Karl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흥기빈 옮김, 『거대한 전환』, 도서출판 길, 2009.

Nan Mellinger, *Fleisch*, 임진숙 옮김, 『고기: 육망의 근원과 변화』, 해바라기, 2002.

Nitin Varma, *Coolies of Capitalism : Assam Tea and the Making of Coolie Labour*, Berlin: Boston: De Gruyter Oldenbourg, 2016.

Markus Schroer, *Raume, Orte, Grenzen.: Auf dem Weg zu einer Soziologie des Raums*, 정인모·배정희 옮김, 『공간, 장소, 경계: 공간의 사회학 이론 정립을 위하여』, 에코리브르, 2010.

3. 기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오픈아카이브(<https://archives.kdemo.or.kr>,
검색일: 2023.02.01.)

<Abstract>

Reconsidering the Drinking Culture of Miners - Focusing on the Taebaek Area in the 1970s-1980s -

Kim, Dalhyun

This study explores the drinking culture of miners from the perspective of their everyday lives. Miners rationalized their drinking and consumption of pork as acts of confirming their survival from labor and preventing occupational diseases. They formed networks of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in taverns, known as “Daepo-jip,” creating their own microcosm. Occasionally, they would visit brothels to fulfill their desires.

In response, the state regarded miners' drinking as decadent and strengthened institutional measures to control them, while also attempting to govern through lenient regulations to secure alcohol taxes. Social activists criticized the state's contradictory attitude, identifying drinking and indulgent cultures as the causes of the mining villages' deterioration and labeling them as social evils. However, the drinking culture of miners can be seen as a transformative aspect of their everyday lives. Drinking served as a driving force for labor and a means of tightly connecting their social networks. After work, miners gathering for drinks was an act of affirming collective camaraderie. Particularly, drinking as a means to strengthen social networks reinforced the mining community and served as a way to share communal feelings in the face of dangerous labor conditions.

Ultimately, miners appropriated and reappropriated taverns and brothels as their communal spaces, transforming them into microcosms where the socialization processes of the mining village occurred.

* Key Words: Miner, Mining Village, Drinking Culture, Taebaek City, Tavern

· 논문투고일: 2024년 06월 09일 · 심사완료일: 2024년 07월 22일 · 게재결정일: 2024년 07월 25일